

위풍당당 임성재 '제5의 메이저' 정복 나선다



임성재가 11일 PGA 투어플레이어스 챔피언십 연습라운드 18번홀에서 티샷을 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만 22세 전 페덱스컵 랭킹 1위 세번째...PGA 플레이어스 챔피언십 도전 "어린 나이에 그렇게 다양한 샷하는 선수는 본 적 없어" 토머스도 엄지 척

임성재(22)가 남자골프 제5의 메이저대회로 불리는 '플레이어스 챔피언십'에 페덱스컵 포인트 랭킹 1위로서 위풍당당하게 참가한다.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 따르면, 임성재는 오는 12일(이하 현지시간)부터 미국 플로리다주 폰테베드라 비치의 TPC 소그래스에서 열리는 PGA 투어 플레이어스 챔피언십에서 많은 환영을 받는 선수 중 한 명이다.

임성재는 지난 1일 혼다 클래식에서 PGA 투어 첫 우승을 차지했고, 8일 아널드 파머 인비테이셔널은 3위로 마쳤다.

2주 연속 좋은 성적을 내면서 임성재는 페덱스컵 랭킹에서 저스틴 토머스(미국)를 밀어내고 1위로 올라섰다.

만 22세가 되기 전에 페덱스컵 랭킹 1위에 오른 선수는 조던 스피스(미국), 호아킨 니만(칠레)을 이어 임성재가 세 번째다.

임성재는 "정말 멋지다. 1위라는 게 믿기지 않는다. 정말 행복하다"고 기뻐했다.

그는 2018년 PGA 2부 투어 콘페리 투어에서 올해의 선수에 오르며, 2019년 PGA 투어 신인상을 차지했다. 2020년에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현지에서는 이런 임성재에게 '기계'(The Machine)라는 별명을 붙여줬다.

임성재에게 페덱스컵 랭킹 1위 자리를 내준 토머스는 임성재가 충분히 PGA 투어에서 우승할 가치가 있는 선수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토머스는 2018년 한국 제주도에서 열린 CJ컵에서 처음으로 임성재와 동반 라운드를 했을 때, 바람이 많이 불어도 다양한 샷을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임성재를 보고 깜짝 놀랐다고 떠올렸다.

그는 "어린 나이에 그렇게 다양한 샷을 치는 선수는 본 적이 없었다. 내가 많은 샷을 배우고 대회에 적응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렸는데, 임성재는 아주 편안하게 대회에서 플레이하고 있었다"고 감탄했다.

토머스는 "내가 아는 선수들은 임성재와 처음 같이 플레이하면 '와, 정말 잘한다'고 생각한다"며 "그가 우승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임성재가 많이 우승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임성재는 2011년 최경주(50), 2017년 김시우(25)를 이어 세 번째 한국인 플레이어스 챔피언에 도전한다.

임성재는 "정상의 자리를 유지하고 싶다. 부담감이 더 커지는 않았다. 지금까지 잘해온 것처럼 상승세를 유지하고 싶다"고 의욕을 다졌다. /연합뉴스

여자골프 세계 랭킹 1위 고진영 필리핀 기업 스폰서와 후원 계약



세마스스포츠마케팅이 11일 세계 1위 고진영 프로(25)가 필리핀 기업 스폰서와 메인스폰서 계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여자골프 세계 랭킹 1위 고진영(25)이 필리핀 기업 스폰서와 메인 후원 계약을 했다.

고진영의 매니지먼트 회사인 세마스스포츠마케팅은 11일 "고진영이 필리핀 최고의 기업 블룸베리 리조트 앤 호텔과 메인 후원 계약을 맺고 2년간 이 회사 산하 기업인 스폰서 리조트 앤 카지노의 로고를 달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역시 여자골프 세계 1위까지 올랐던 박성현(27)의 후원사이기도 한 스폰서 리조트 앤 카지노의 회장인 엔리케 K. 라존은 필리핀 마닐라에 본사가 있는 향만 운영사 인터내셔널 컨테이너 터미널 서비스 대표를 맡은 인물이다.

세마스스포츠마케팅은 "양측 합의에 따라 구체적인 계약 조건은 발표하지 못한다"며 "세계 1위 선수 명성에 부합하는 수준에서 계약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다만 같은 세마스스포츠마케팅 소속인 박성현이 1년 전 역시 블룸베리 리조트 앤 호텔과 2년간 후원 계약을 체결할 당시 "2년간 70억원" 정도의 계약 규모가 추정됐던 것에 미루어 올해 고진영도 이와 비슷한 선에서 계약이 성사됐을 가능성이 크다.

고진영은 지난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메이저 대회인 ANA 인스퍼레이션과 에비앙 챔피언십을 비롯해 4승을 따냈고, 올해의 선수상과 상금왕, 최저타수상 등 주요 부문을 석권했다.

고진영은 "저를 믿고 후원을 결정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며 "튼튼한 후원사가 생긴 만큼 더욱 책임감을 갖고 LPGA 대회에 임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세계 1위 타이틀을 의식하지 않고 항상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노력하며 새로운 목표를 위해 도전하는 선수가 되겠다"며 "저를 응원해주시고 아껴주시는 팬분들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매 대회 집중해서 우승으로 보답하겠다"고 다짐했다.

고진영은 19일부터 나흘간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열리는 LPGA 투어 불빛 파운더스컵에 출전, 대회 2연패를 노린다. /연합뉴스

광주도시철도공사 김성연·이정윤 여자유도 올림픽 문 다시 열렸다

국제유도연맹 예선대회 6월까지 연장

여자유도 국가대표 김성연(29)과 이정윤(24·이상 광주도시철도공사)에게 도쿄올림픽 출전을 향한 문이 다시 열렸다.

국제유도연맹(IJF)은 11일(한국시간) "올림픽 예선 대회 기간을 기존 5월 31일에서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당초 IJF는 올해 5월까지 체급별 올림픽 랭킹 18위 안에 들어간 선수에게 도쿄올림픽 출전권을 배부할 계획이었다.

올림픽 랭킹은 랭킹포인트가 걸린 국제대회 성적을 통해 쌓을 수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으로 문제가 생겼다.

국제대회 개최국들이 잇따라 대회 취소를 발표하거나 한국 등 특정 국가를 방문한 사람들의 입국을 제약하면서 차질이 빚어졌다. 이에 IJF는 4월까지 예정된 모든 국제대회를 취소한다고 10일 밝혔다.

그리고 발표 하루 만에 올림픽 예선 대회 기간을 연장하는 추가 조처를 발표했다.

연맹은 아울러 취소하기로 했던 5월 이전 국제대회를 '연기'한다고 수정했다.

올림픽과 무관한 카트 대회와 주니어 대회는 예

정대로 취소한다.

IJF 발표에 따라 6월 12일부터 14일까지 열리는 헝가리 부다페스트 그랜드슬램과 6월 26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되는 중국 후허하오터 그랑프리 대회는 올림픽 예선으로 격상됐다. 다만 후허하오터 그랑프리 대회는 중국 사정에 따라 취소될 가능성이 크다.

IJF가 올림픽 예선 대회 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김성연과 이정윤은 랭킹 포인트 적립을 위해 헝가리 부다페스트 그랜드슬램 출전을 목표로 잡았다.

최근 2020 텔아비브 그랑프리에서 은메달을 획득한 김성연은 가급적 많은 국제대회에 참가해 올림픽 출전권을 획득해야 한다. 국제유도연맹(IJF) 올림픽 랭킹 기준 체급별 상위 18위에 걸러진 대륙별 올림픽 랭킹 체급별 1위를 차지해야 올림픽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김성연과 한솔밥을 먹고 있는 78kg급 이정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최원 광주도시철도공사 감독은 "코로나19로 상황이 급변하고 있지만 일회일비하지 않았다. 김성연과 이정윤이 어떤 대회에 출전하더라도 최고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며 "이들이 반드시 도쿄올림픽에 출전해 성과를 올리도록 총력을 쏟겠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연합뉴스

프로배구, 코로나19 위험 줄면 23일 재개 논의

코로나19 확산 위험으로 중단했던 한국 프로배구가 빠른 이달 23일 V리그를 재개한다. 물론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줄어들어야 한다'는 전제가 있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지난 10일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사무국 회의실에서 남녀 13개 구단 사무국장이 모인 가운데 실무위원회를 열고, 리그 재개 시점과 재개 시 운영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KOVO는 "실무위원회에서 코로나19 위험이 줄어들어, 경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3월 넷째 주에 경기를 재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정부가 정한 초·중·고교의 개학일이 3월 23일이다. KOVO 실무위원회는 "학생들이 등교할 수 있는 상황"을 리그 재개의 기준점으로 봤다.

"최대한 남은 정규리그 일정은 소화한다"라고 뜻을 모은 실무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지켜 본 뒤, 이사회를 열고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



10일 이후 서울 마포구 한국배구연맹(KOVO) 사무실에서 열린 실무위원회에서 남녀 프로배구 13개 구단 사무국장과 연맹 관계자들이 회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V리그는 2월 25일부터 무관중 경기를 치르다가, 이달 3일 리그를 중단했다.

현재 남은 정규리그 경기는 총 24경기(남자 14경기, 여자 10경기)다. 포스트시즌은 남자 준플레이오프가 성사될 경우 총 16경기를 치른다.

KOVO와 각 구단은 체육관 대관 문제와 외국인 트레이너아웃 등 다음 시즌 준비를 위해 4월 15일까지는 모든 일정을 마쳐야 한다고 판단한다. V리그 팀이 모으로 쓰는 체육관 대부분이 4월 15일 21대 국회의원 선거 개표장으로 쓰이는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연합뉴스

산행안내

3월18일(수)
▲광주청록산악회 3월18일(수) 전남 광양 쫓비산 산행, 백운로타리아어벙크약 07:30, 교직원공제회관 07:40, 예술회관 후문 07:50, 각화동 현대물류앞 08:00 * 다음카페 광주청록산악회 ☎ 010 8612 4504, 010 8612 3177

3월21일(토)
▲광주금강산악회 3월21일(토) 여수 천혜의 비경 연도(소리도) 섬 트레킹, 봉선동

롯데슈퍼앞 02:30, 진월동 식자재마트앞 02:40, 염주체육관 정문 02:50, 한국병원 앞 03:00, 문예회관 정문 육교앞 03:15, 비엔날레 주차장 입구 03:30 * 다음카페 광주금강산악회 ☎ 010 6294 2678, 010 3620 2284

3월22일(일)
▲광주자연보전탐사회 3월 22일(일) 북한산(835.6m) 백운대-만경대-대동문, 염주체육관 05:00, 무등경기장 05:20, 동광주 홈플러스 05:40 * 다음카페 광주자연보전 탐사회 ☎ 010 3666 3291, 010 2663 0304 3월25일(수)

광주청록산악회 3월25일(수) 충북 괴산 산막이옛길 트레킹, 백운로타리아어벙크약 06:30, 교직원공제회관 06:40, 예술회관후문 06:50, 각화동 현대물류앞 07:00 * 다음카페 광주청록산악회 ☎ 010 8612 4504, 010 8612 3177

광주일보 kwangju.co.kr
광고신청 및 게재문의 227-9600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220-0551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68년
광주일보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에닝**

광고문의 (062)227-9600
신문구독 (062)220-0551
예약구독 (062)220-0550

상속한정승인공고

· 피상속인 : 망 이상호(520905-XXXXXX)
· 최후주소 : 광주 북구 월동로 28, 101동 1906호 (두암동, 무등파크맨션)

피상속인 망 이상호의 상속인은 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광주가정법원 2020년 3월 3일 3월 3일 심판 인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일반채권자 및 승계자는 공고일로부터 신고기간내에 채권신고를 하시지 않거나 위 기간이 지나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0년 3월 12일

· 상속인 : 이수경(870914-XXXXXX)
광주 서구 지평로 15, 201동 311호 (지평동, 라인대주아파트)

· 신고기간 : 2020. 3. 12. ~ 2020. 5. 21.
· 채권신고장소 : 상속인 이수경의 주소

김제 중심지

대지 2,685㎡
건물 446㎡

요촌동 중심상가지대

합필시 공시지가 30억

20억 010-8555-0998

주인 직접

LOTTE CINEMA | 중앙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인버저블맨
2관	1917, 슬럼독 밀리어네어
3관	레미제라블, 스타이즈 본, 비긴 어게인 맘미아, 어거스트 러쉬
4관	다크 워터스, 슬럼독 밀리어네어
5관	정직한 후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
6관	인버저블맨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동화음악회
GAC 기획공연-FOCUS 동화음악회 <책으로 똥을 뚫는 돼지>
4.7(화) 11:00, 14:00
광주문예회관 소극장

GAC 기획공연-FOCUS
엠마뉴엘 체코나보라인 바이올린 리시탈
4.9(목) 19:30
광주문예회관 소극장

GAC 기획전시
화양연화 : 강남구 초대전
3.27(금) ~ 5.10(일)
광주문예회관 갤러리